대구일보

네덜란드 작가, 르네 리트마이어 국내 첫 초대전 개최, 11월13일까지 갤러리 팔조

발행일 2022-09-25 13:46:18

한국에서 지내며 각 도시에서 받은 느낌 작품으로 온전히 전달

“대구는 계획적이지만 차분하고 부드러워”…대형 회화 작품 14점 전시

르네 리트마이어가 지난 23일 갤러리 팔조에서 자신의 작품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갤러리 팔조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 시간.

“대구를 와서 느낀 점은 생생하고 활기차지만, 그 속에 계획적이고 차분하다는 것이죠. 잘 정돈돼있고, 사람들에게서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첫 초대전을 여는 르네 리트마이어가 지난 23일 갤러리 팔조 대구(대구 수성구 용학로 145-3, 4층)에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르네 리트마이어는 네덜란드 작가다. 1957년 네덜란드 슈헤르토겐보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인스브루크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뒤, 그리스의 사립 미술 아카데미의 창립을 도맡았다.

부업으로 작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왔지만 전업 작가를 꿈꿨던 그는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1994년 큰 결심을 한다. 19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전 세계의 도시 곳곳을 돌며 여행과 장기 체류를 거쳐 그 도시에서 받은 느낌 등을 작업으로 풀어내는 전시를 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 도시에서 그가 받은 느낌으로 작업물을 만들어 보이는 자리다.

르네는 대구에 대해 연신 ‘calm(침착한, 차분한)’을 강조했다.

“각 도시에서 주는 인상과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내가 보는 대구는 계획적이고 잘 정리된 듯하며 모두가 차분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작품들은 대부분 채도가 낮게 표현됐다.”

사실 그는 박스 시리즈로 알려진 작가다. 1997년부터 프랑스 남부에서 미국 미니멀 아트와 이른바 새로운 추상화를 알게 된 것에 자극을 받아 자신만의 미술 형태인 박스 시리즈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박스는 작은 입체 오브젝트로, 5면에 유화 페인트가 주로 칠해져 있으며 가변적인 설치로 벽이나 바닥에 설치된다.

다만 그는 미니멀리즘의 접근으로도 감정이 없는 완전히 비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예술 작품을만들 수 없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즉 미니멀리즘, 추상표현주의, 개념미술 등에서 오는 작가가 배제된 개념을 역설하며, 그 내면에는 지극히 작가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 개입이 들어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력한다.

그러한 확고한 개념으로 그의 박스들, 평면 회화작업과 함께 그가 바라본 각 국의 도시와 풍경의 주관적인 느낌의 효과를 가시화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나의 작품들은 단순히 대상의 시각적 표현 이미지를 재현하지 않는다. 내 개념의 감성과주관성은 나의 존재와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며 “나는 그 주제에 대해 매우 개인적인 주관적인생각을 반영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것은 나와의 만남이고 나의 모습들과 마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르네 리트마이어 작

이번 전시에서는 박스 시리즈가 아닌 대형 회화 작품 모두 14점을 보여준다.

가장 큰 특징은 대형 직사각형 캔버스에 직선을 긋고, 2가지 색으로 분리된 점이다. 작품 14점은 모두 이 같은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르네 리트마이어는 “선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지만 계획적인느낌이 강해서다”며 “질감이나 색채는 유럽에서는 보통 긁어내며 거친 질감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일 페인팅을 더해 겹겹이 쌓은 것이다. 이는 한국 정서와 거친 질감의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 받은 차분한 감정이 나에게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작업에서도 내가 받은 **느낌이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고 덧붙였다**.

전시는 11월13일까지. 문의: 010-2806-6802.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Copyright © 2018 www.idaegu.com All rights reserved